

‘빈손 복귀’ 통합당 무엇으로 싸우나…공수처 ‘전투력’ 정비

주호영 “보이콧 길어지지 않을 것”…전날 원구성 위한 회의 이어가
상임위 등 국회 복귀해도 수적 우위 밀려 여론전 외 대응책은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맞서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이어오던 미래통합당이 조만간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이후 상황 변화가 없는 가운데 마땅한 대여투쟁 수단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jtbc ‘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빨리 막고 바로 돌아서 웃을 수 없지만 국회를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며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르면 다음주께 복귀할 전망이다.

통합당은 지난달 30일 당 차원에서 희망 상임위원회를 받는 등 본격적인 복귀 체비를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 소속의

원 전원 103명의 사임계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사·보임계를 동시에 제출하면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전날 저녁 상임위 배정 등 원구성을 위한 회의를 이어가는 등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

통합당이 상임위에 복귀하면 최대 협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이다. 공수처장 청문회 등 후속법안처리는 물론, 야당이 갖고 있는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도 손을 보겠다는 것이 여당 기류다.

통합당은 상임위 복귀 이후 정부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하지만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배정 역시 ‘선수와 상관 없이 전투력’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론전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당 차원에서 각종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여당의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통합당이 보이콧을 접고 국회에 복귀하는 것은 20대 국회 당시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지만 오히려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통

해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을 모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당독재’라는 정치적 비판만으로 여당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제는 국회에 복귀한다고 해도 여론전을 제외하면 마땅한 투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계파 갈등 등 당내 고질병은 사라졌지만 이번엔 수적 우위에 밀려 단일대오를 형성해도 좀처럼 성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여론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당의 지지율을 20% 중후반대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적극 지지층의 여론조사 참여도 등에 따라 실제 지지도와는 다를 수도 있지만 통합당의 여론 지지세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여론전이 얼마나 먹힐지도 미지수다.

당 지도부에서는 통합당의 이같은 지지도가 과거 새누리당 시절부터 이어져온 ‘강자’ 이미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 쇄신 등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지지가 우리에게 안 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강자로 비치기 때 문”이라며 “이제 국민에게 우린 (정부·여당) 막을 힘이 없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이 저 사람들만으로는 안되고 우리가 도와야겠다. 통합당이 하는 일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1

‘구원투수’ 임종석 등판 임박했나…青안보실장·국정원장 발탁설



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후임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안보라인 추가 개편을 놓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1일 청와대와 여권 등에 따르면,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과 신뢰가 두터운 임 전 실장이 어떤 식으로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경험을 갖고 있는 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임 전 실장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며 “북한이 신뢰하는 임 전 실장에게 어떤 역할이든 맡겨서 대화가 끊어진 남북관계를 다시 연결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권 전체의 흐름을 보면 통일부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과 임 전 실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임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의사를 정확히 상대에게 전달하고, 상대의 의사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느

여권 내부서 현 남북관계 해소 위한 역할론 제기

“대화 끊어진 남북관계 다시 연결하도록 해야”

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석인 통일부 장관 인선 작업과 맞물려 임 전 실장의 별탁 가능성성이 끊임없이 훌려 나오고 있다.

당초 임 전 실장은 이 의원과 함께 통일부장관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의원의 통일부장관 기용 유력성이 제기되면서 임 전 실장에게 어떤 역할이든 맡겨서 대화가 끊어진 남북관계를 다시 연결하도록 해야 하지

발탁 가능성까지 다양한 설(說)들이 돌고 있다.

임 전 실장이 재임 3년을 넘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리로 바로 가거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정 실장의 바통을 이어받고 공석이 되는 국정원장직에 임 전 실장이 메우는 식의 연쇄 이동 사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민간 영역에 집중하겠다”라며 각종 입각설 등에 손사래를 치던 임 전 실장 측의 기류도 다소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임 전 실장측은 이날 통화에서 “상황 변화는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대통령께서) 역할을 맡기신다면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뉴스1

김부겸 내주 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 삶 책임지는 당 콘셉트”

당 대표 출마 선언 메시지 “집권여당 역할 더 무겁게”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당초 6일로 계획했지만, 7일로 출마선언을 예정한 이낙연 의원과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낙연 의원 측과) 상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 정도 예의를 차려주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의원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 출마선언 의사 를 밝히자, 김 전 의원도 이날 오후 곧바로 기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6일을 디데이로 준비했는데, 이낙연 의원이 7일에 하신다고 하니 그로부터 하루 이틀 정도 밀리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선언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의 콘셉트로 풀어야 할 것 같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종족적 삶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고 구성할지 등을 뚜어야 하고, 당도 지금까지보다 역할을 더 무겁게 가져가야 한

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논란에 대해서는 “취업 자체가 정말 좋은 문이라는 취업준비생들의 불안함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을과 을이 서로 싸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싸울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많이 만드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올해 확실히 취업자 숫자가 줄었는데 코로나 세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

